

2015년도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5. 07. 05 ~ 07. 20.

**대 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E-9, H-2]**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2015년도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 조사 목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근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만들어 풍요로운 한국근로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 조사 개요

- 2015. 07. 01 : 설문 문항 작성
- 2015. 07. 05 ~ 07. 20 : 설문조사 실시
- 2015. 08. 10 : 설문 내용 분석
- 2015. 08. 31 : 설문 결과보고

□ 조사 장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실 및 창원고용센터, 통영고용센터, 진주고용센터, 창원출입국 사무소, 이동상담 장소 등

□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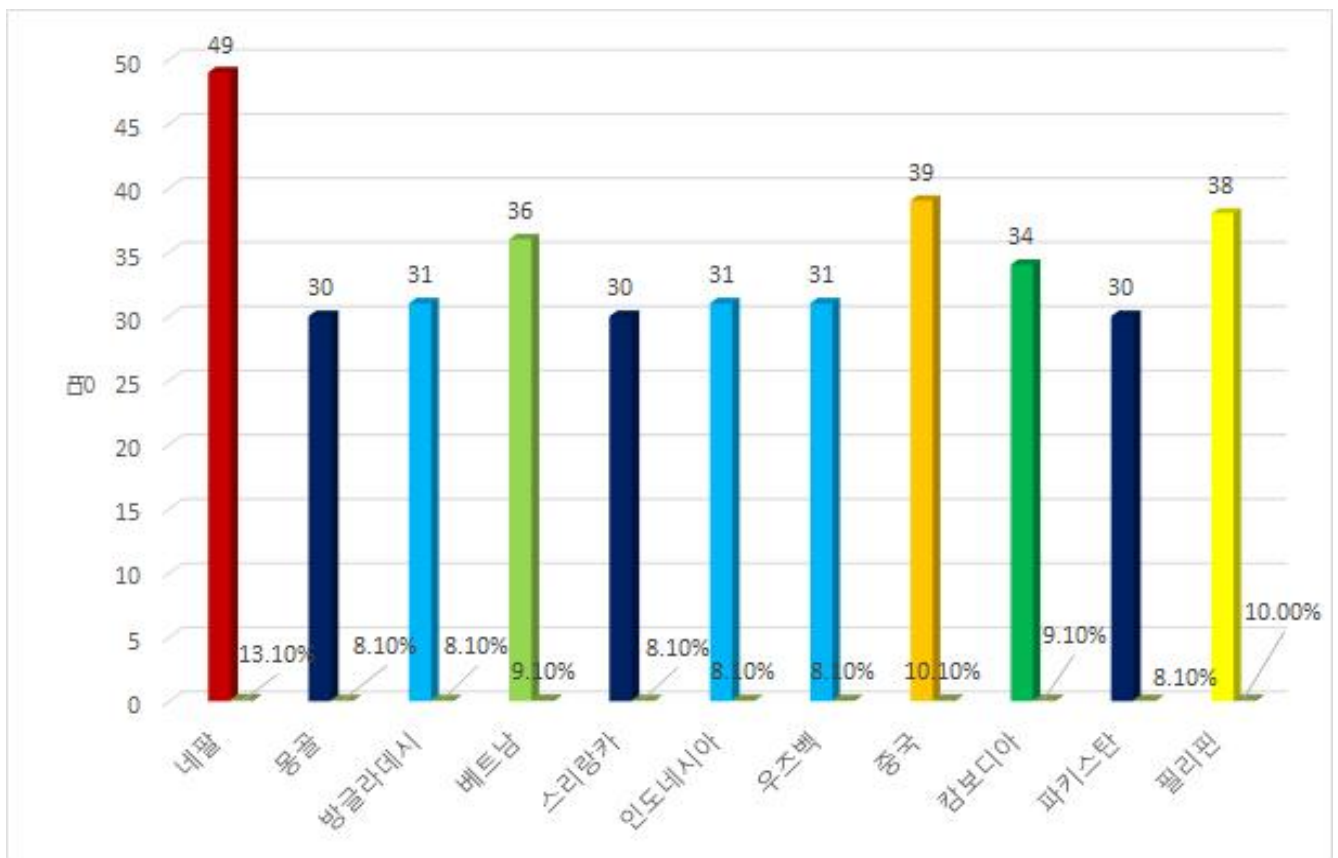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379명
- E-9근로자 352명, H-2근로자 27명

□ 조사 방법

- 11개국가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 응답자 국가 분포

국가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크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인원	49명	30명	31명	36명	30명	31명	31명	39명	34명	30명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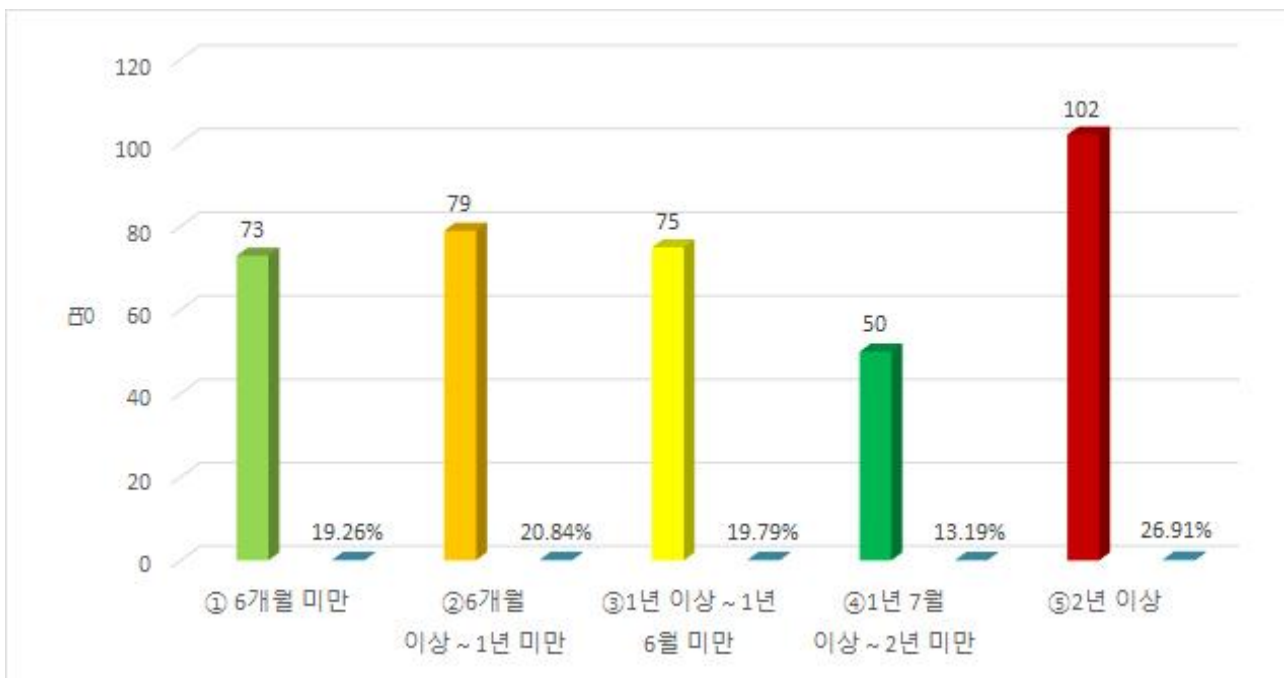
○ 이번 설문조사에 11개국 외국인근로자 총 379명으로

– 네팔(13.1%) > 중국(10.1%) > 필리핀(10%) > 베트남(9.1%), 캄보디아(9.1%) > 몽골(8.1%), 방글라데시 (8.1%), 스리랑카 (8.1%), 인도네시아(8.1%), 우즈베크 (8.1%), 파키스탄 (8.1%) 순으로 참여하였음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조사

1. 귀하는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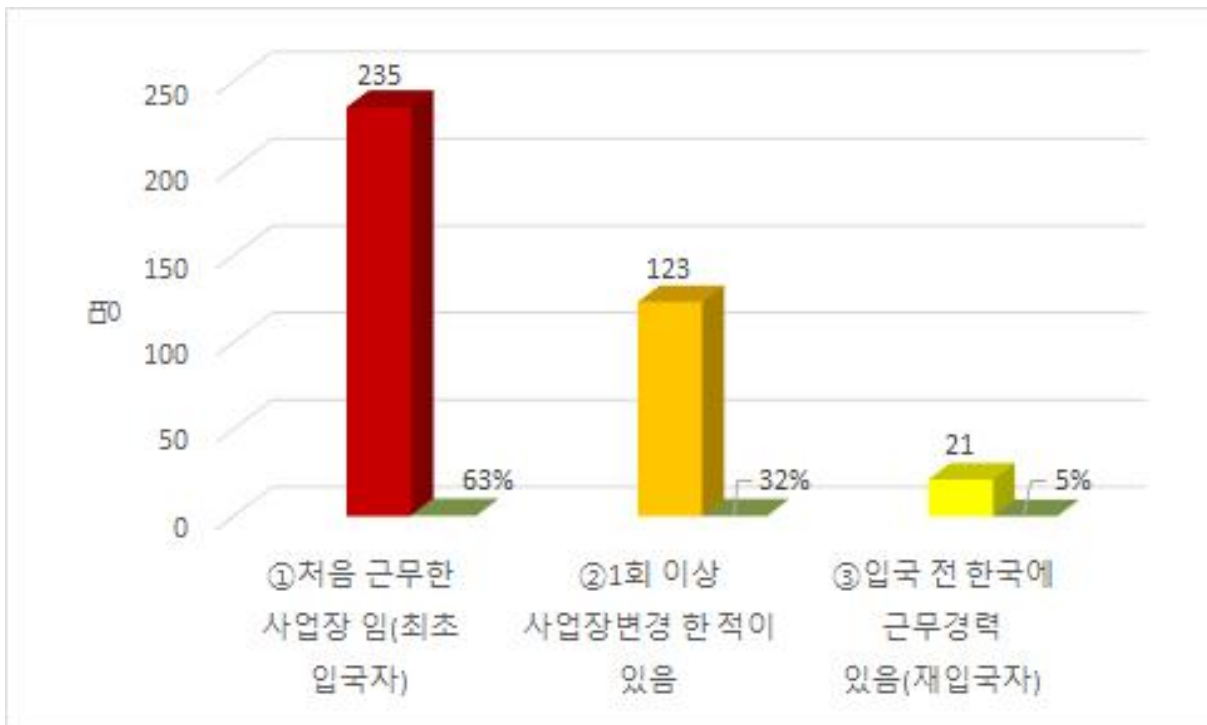
보기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1년 6월 미만	④ 1년 7월 이상~2년 미만	⑤ 2년 이상
응답 379명	73명	79명	75명	50명	102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의 질문에
 -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02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7%로 가장 많았고
 - 반면 6개월 미만은 73명으로 19%로 나타났다
-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는 227명(61%)로 사업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6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는 73명(19%)으로 5명 중 1명은 사업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세밀한 상담과 분석이 요구됨

2.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한국에 최초 근무 사업장 인가요?

보기	① 처음 근무한 사업장 임(최초 입국자)	② 1회 이상 사업장변경 한 적이 있음	③ 입국 전 한국에 근무경력 있음(재입국자)
응답 379명	235명	123명	21명



○ 근로자에게 사업장고용변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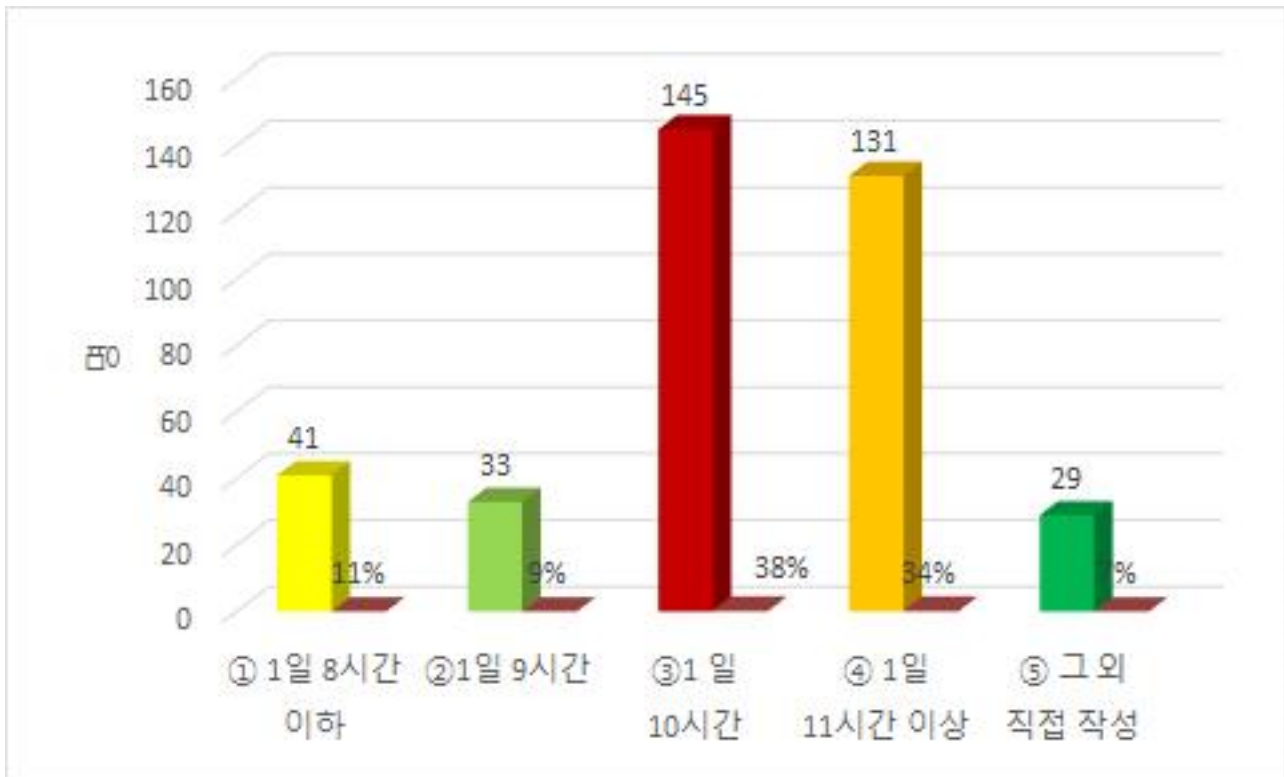
- 최초 입국 시 근로계약 사업장인 경우가 235명(63%)
- 1회 이상 사업장변경을 한 경우가 123명(32%)으로 조사되었음

○ 재입국근로자(입국 전 한국에 근무경력 있음)는 21명(5%)로

재입국근로자들이 상당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등은 별도의 상담 등을 통해 재입국의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귀하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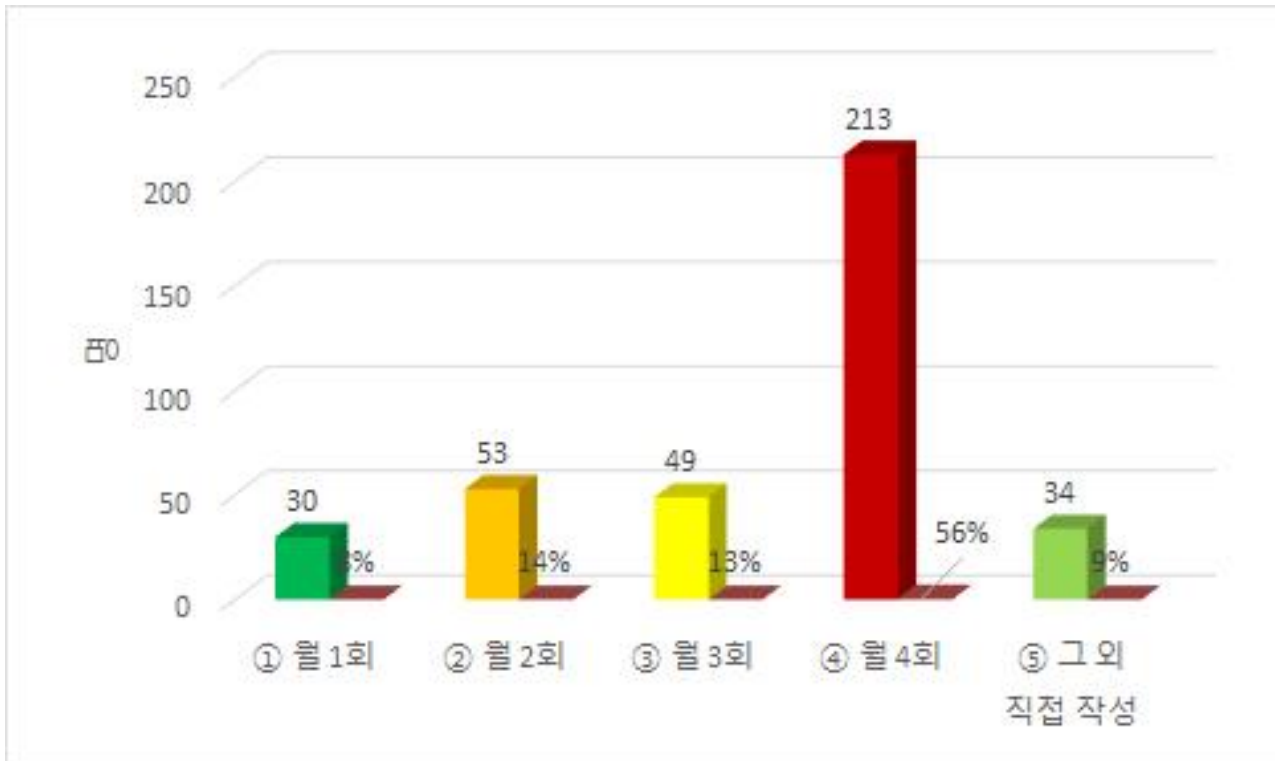
보기	① 1일 8시간 이하	② 1일 9시간	③ 1 일 10시간	④ 1일 11시간 이상	⑤ 그 외 직접 작성
응답 379명	41명	33명	145명	131명	29명



- 근로자가 하루에 근로하는 평균 시간에 관한 질문에는
 -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145명(38%)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고
 - 하루 평균 8시간 이하 근로하는 근로자는 41명(11%)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에서 1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305명(81%)으로 많은 근로자가 1일 1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직접 작성한 경우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통계에는 삽입 적용할 수 없었음

4. 귀하는 한 달에 쉬는 날은 몇 일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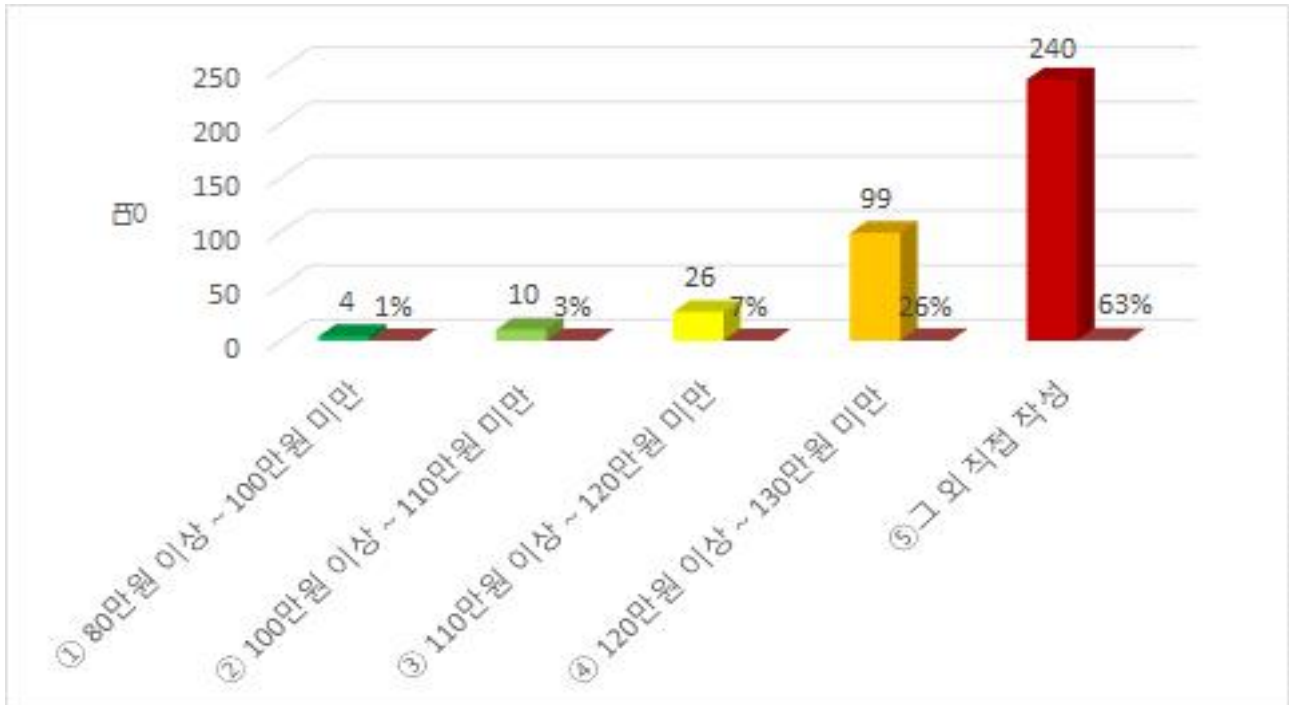
보기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	④ 월 4회	⑤ 그 외 직접 작성
응답 379명	30명	53명	49명	213명	34명



- 근로자가 한 달에 쉬는 날은 몇 일 인지에 대한 질문에
 - 월 4회로 응답한 근로자가 213명(56%)으로 가장 많았고
 - 월 1회 휴무로 응답한 근로자는 30명(8%)으로 나타남
- 월 4회 미만은 천제 응답 대상자 중 132명(35%)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 1회는 휴무를 갖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과의 연계로 많은 근로자들은 주 60시간(주 5일 X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짐

5. 귀하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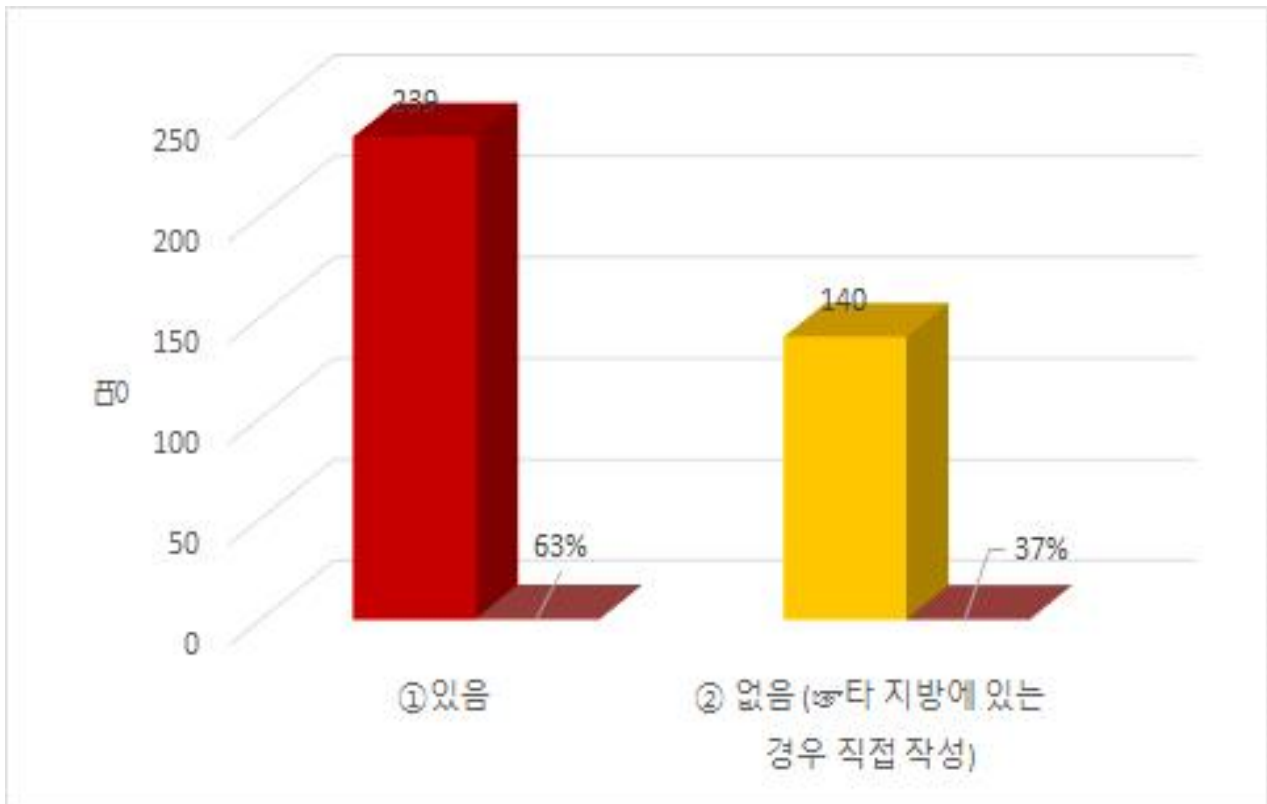
보기	①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110만원 미만	③ 11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④ 12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	⑤ 그 외 직접 작성
응답 379명	4명	10명	26명	99명	240명



- 2015년도 최저 시급 5,580원(최저임금 1,166,220원)인 근로자임금은
 - 최저임금 수준인 12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40명(10.6%)이며
 -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근로자도 99명으로 26.1%에 달했음
- 한 달에 최저임금(120만원 미만)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14명(4%)나 되어 위법적인 사용자도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은 입사, 퇴사, 병가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116만 6220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 그 외 직접 작성한 근로자 중 240명(63%)이 한 달 평균 13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사업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6.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인근에 동일 국적의 친구가 있습니까?

보기	① 있음	② 없음 (타 지방에 있는 경우 직접 작성)
응답 379명	239명	1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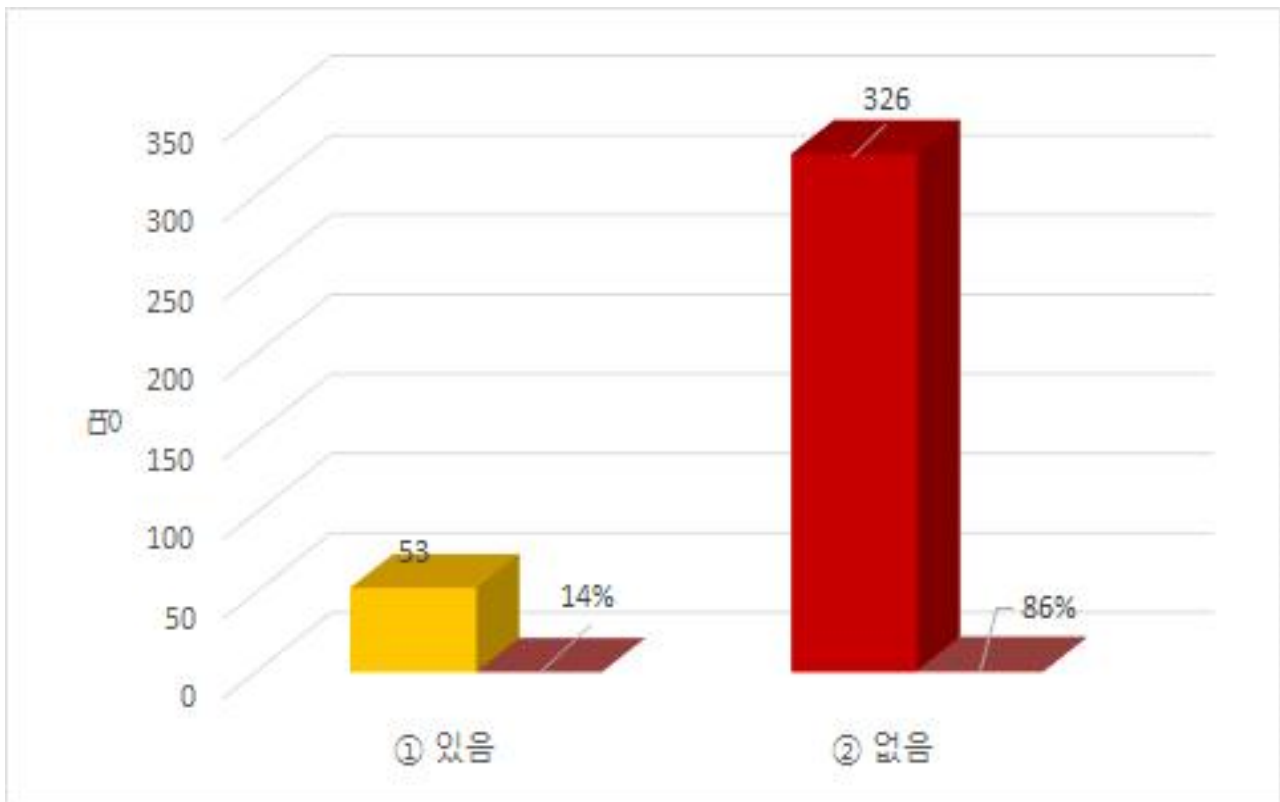
- 인근 사업장에 같은 국적의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 239명(63%)이 있다고 응답함
 - 인근 사업장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타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40명(37%)이었음
- 대부분 자국근로자 커뮤니티가 왕성하여 가능한 근로자 서로 간의 인근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음

7. 사업장 무단이탈 이유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 ☐ 사업장변경을 해줄 경우 우리도 이탈을 하지 않는다.
- ☐ 친구가 있는 기숙사에서 몇 일간 있다가 왔는데 사업주가 이탈하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 ☐ 이탈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
- ☐ 이탈이 있는 것에 반대를 한다.
- ☐ 산재로 인해 사업장에 있으면 불편하여 친구 집에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이것도 이탈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 ☐ 사업주만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해놓은 것 같다. 사업장변경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 ☐ 근로자도 이탈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업장변경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 ☐ 사업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탈을 택하는 근로자의 마음도 알아주길 원한다.
- ☐ 이탈은 한국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게 사업주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 ☐ 이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8. 브로커로부터 타 사업장 이직에 대해 제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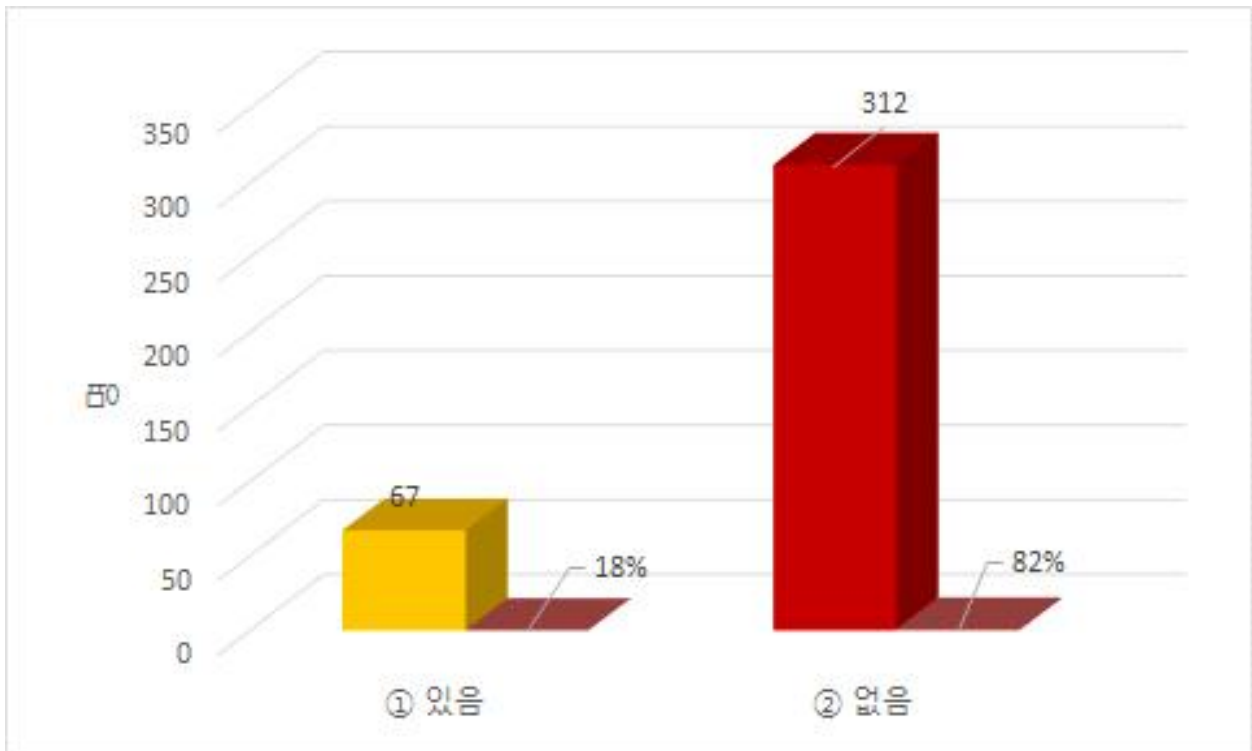
보기	① 있음	② 없음
응답 379명	53명	326명



- 한국에서 근로를 하면서 브로커에게 타 사업장 이직에 대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 53명(14%)이 이직에 대해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며
 - 326명(86%)는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한국에서 소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브로커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센터 등을 통해 소외지역까지 서비스를 강화해야함

9.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한국말이 서툴러 브로커 조력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하거나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손해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현상에 대해 귀하도 알고 있습니까?

보기	① 있음	② 없음
응답 379명	67명	3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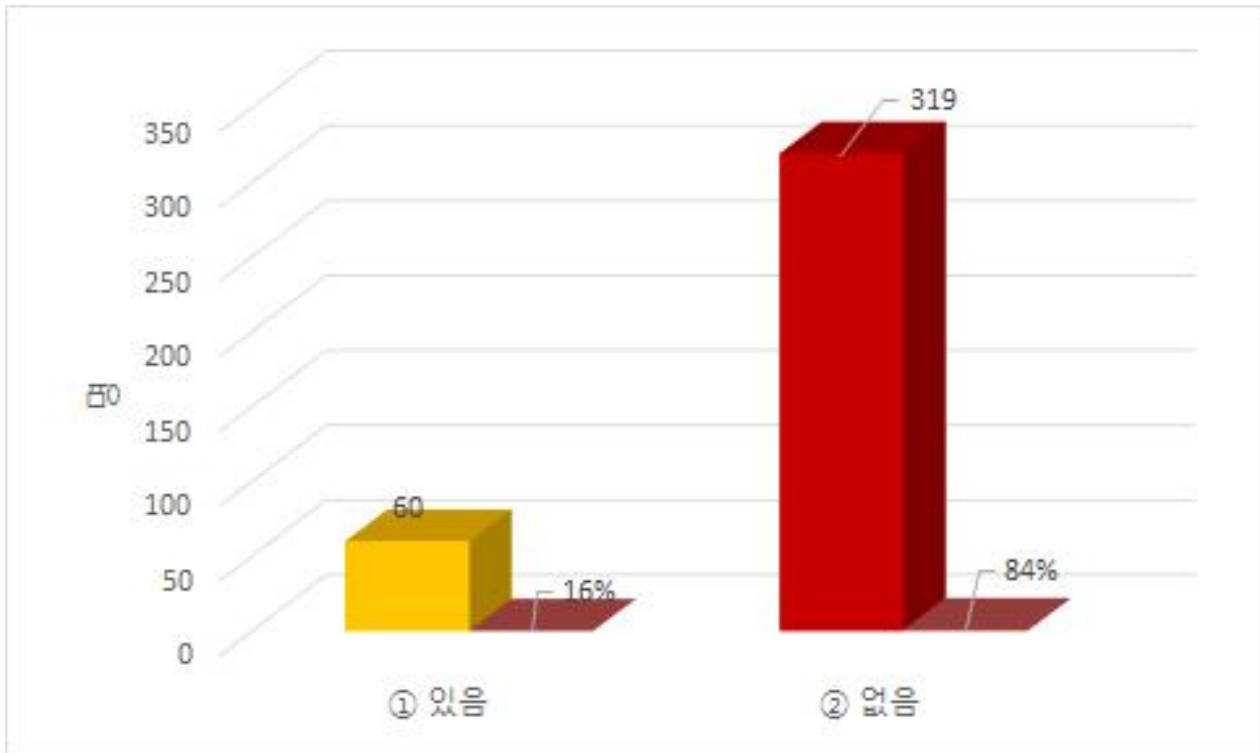
○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손해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 응답한 근로자 67명(18%)이 이런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 312명(82%)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312명(82%)나 되는 것을 보아 고용센터의 알선방법이 변경된 후로 브로커의 역할도 변경, 약화된 것으로 생각됨

10. 귀하의 경우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습니까?

보기	① 있음	② 없음
응답 379명	60명	319명



○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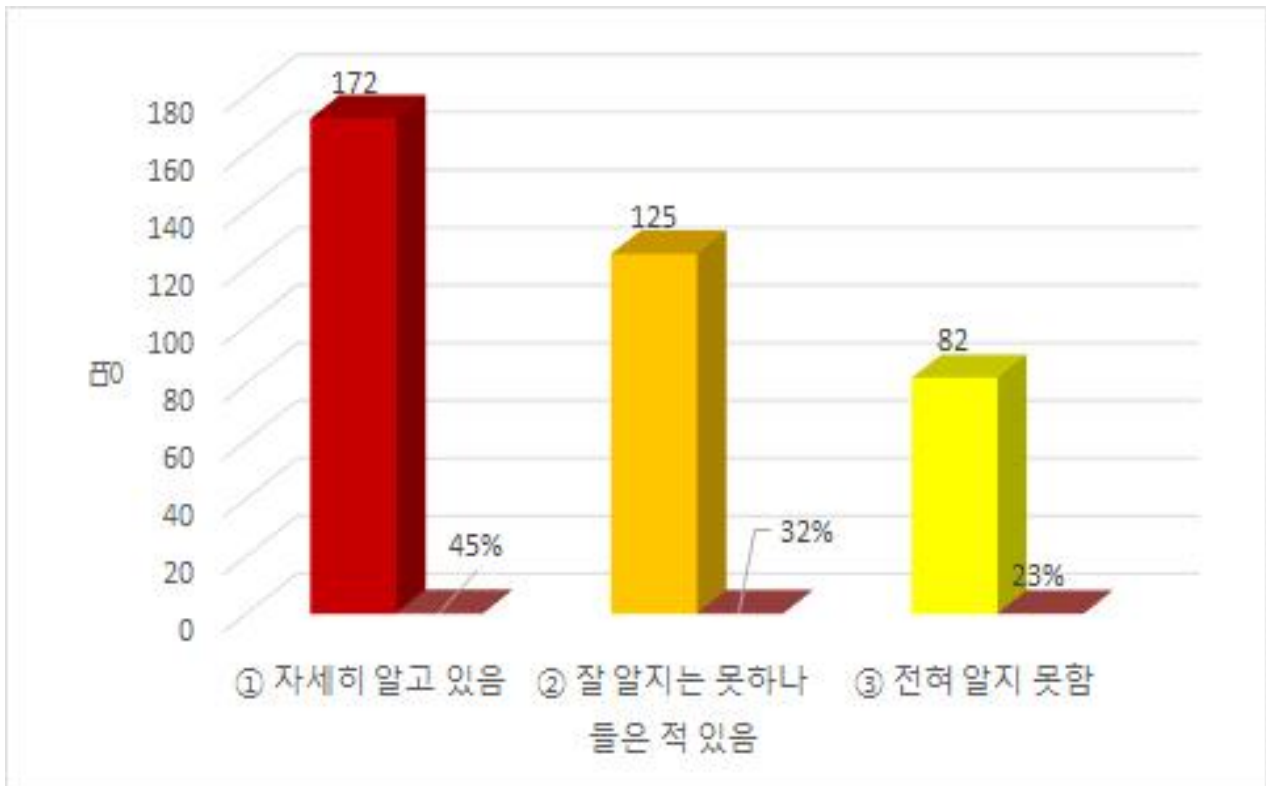
- 60명(16%)이 이직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보였고
- 응답자의 대부분인 319명(84%)은 이직에 대한 생각이 없었음

○ 이직에 대한 생각이 없음은 근무조건이 좋다거나, 초기입국자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고는 볼 수 없음

-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 및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음

11. 귀하는 성실근로자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보기	① 자세히 알고 있음	② 잘 알지는 못하나 들은 적 있음	③ 전혀 알지 못함
응답 379명	172명	125명	82명



- 성실근로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 172명(45%)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 125명(32%)이 잘 알지는 못하나 들은 적이 있었고
 - 응답자의 82명(23%)은 성실근로자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
- 초기입국자인 경우가 성실근로자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입국자 모니터링 때에 성실근로자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2. 귀하는 현재 근무하는 중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십시오.

- ☐ 일은 힘든데 급여가 적다.
- ☐ 한국말 빨리하면 알아듣기 힘들다
- ☐ 점심식사가 맛이 없다.
- ☐ 한국사람 말하면서 욕을 많이 한다.
- ☐ 같은 나라 사람이 없어 외롭다.
- ☐ 기숙사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다.
- ☐ 다른 나라 사람과 기숙사를 같이 사용해서 시끄럽다.
- ☐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고 실수하면 욕한다.
- ☐ 잔업과 야간을 많이 하고 싶다.
- ☐ 인격적으로 대해 달라.
- ☐ 우리가 항상 먼저 인사하길 원한다.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총평

□ 현재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61%로 나타나 있으나 근로자의 최초 입국시기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설문은 생략되어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만족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

- 역시,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40.1%도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만족도는 평가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1일 근로하는 평균 시간은 10시간이었는데 이는 법정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 60시간 정도를 맞춰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조사결과에서 1일 평균 8시간 이하 근로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11%는 급여와 관계되므로 사업장변경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장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 시 근로계약 사업장인 경우가 63%였으며, 1회 이상 사업장변경을 한 경우가 32%이므로

- 1회 까지 사업장 변경을 승인한다면 95%가 성실근로자로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초기입국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초기입국자 모니터링과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1회 변경근로자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입국근로자(입국 전 한국에 근무경력 있음)가 5%이지만 성실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면 점점 재입국근로자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됨.
- 이들이 잘했던 사업장 적응 및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을 사례로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홍보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은 대부분 월 최저임금 116만 6220원 이상을 받고 있어 급여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용의 안정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일거리가 없어 월급을 적게 받는 달에 대하여 매우 불안한 심경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에 사업장변경 요구에 따른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음

